

# 해남·영암 재난 위험 전국 최고

지역안전도 평가 광양 2등급·순천 3등급으로 비교적 안전

전국에서 영암군과 해남군이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등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이 재난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2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배포한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남군과 영암군을 포함해 경기 남양주시·김포시, 강원 평창군, 전북 진안군, 경남 진해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취약위인

10등급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2등급을 받아 재난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며 순천은 3등급, 나주·고흥·보성·영광·장성·진도 등은 4등급, 여수·구례는 5등급을 각각 받았다.

또 화순·강진·무안은 6등급, 담양·신안은 8등급, 목포·곡성·장흥·함평·완도는 9등급을 받는 등 전남 서남권이 재난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남구가 5등급으로 상

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았으며, 광산구가 6등급, 서구·북구가 7등급으로 뒤를 이었으며 동구가 9등급을 받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안전도 평가는 지역별 재난위험 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설장비 자체확보, 방재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공통분야 ▲하천·소하천·수리시설 등 재해유발시설분야 ▲도로·항만·여항 등 편의시설분야 등으로 나눠 실시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0회의 재난이 발생

평가 기준별로 공통지표는 대구·부산·강원·대전의 안전도가 높았지만 전남·광주·서울·인천·경남은 대체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시설은 제주·대구·대전·충남·부산의 안전도가 높았지만 광주·강원·울산·경기·전북은 일반적으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광주·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가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시설은 부산·대전·대구·서울은 안전도가 높고 광주·전남·인천·울산·제주는 대체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88번의 재난이 발생, 161명의 인명피해와 1조 5천 58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7년 광주·전남 시·군·구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

2등급	광양시
3등급	순천시
4등급	나주시, 고흥·보성·영광·장성·진도군
5등급	광주 남구, 여수시, 구례군
6등급	광주 광산구, 화순·강진·무안군
7등급	광주 서구·북구
8등급	담양·신안군
9등급	화순·진도군, 목포시, 국성·장흥·함평·완도군
10등급	해남·영암군

(자료: 소방방재청)

해 1천 496명의 인명피해와 20조 8천 7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피해가 커던 지역은 강원 강릉시로 37회의 재난이 발생, 5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난피해 규모는 1조 1천 94억 원이었다.

전남지역은 88번의 재난이 발생, 161명의 인명피해와 1조 5천 580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교실 현대화 사업 입찰 규정 어겼다"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 "사법당국 수사 나서야"

초·중·고교 컴퓨터실의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실 현대화 사업이 입찰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20일 시교육위 제17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지침서에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련법령(조달청 훈령 제16조)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초 '서버기반 노후PC 활용 컴퓨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및 17인치 모니터 일체형 장비 등에 있어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뒤늦게 시교육청이 재안내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사업 추진 학교 대부분이 해당업체의 제품을 선택했다.

이 사업에는 초·중·고교 31곳이 대상이며, 각 학교의 PC 및 주기기자재 교체 수준에 따라 4천만원(6곳), 2천 500만원(19곳), 1천 500만원(6곳) 등 총 8억500만원이 투입됐다.

윤 위원은 또 "일부 학교에는 중국산 단종 모델이 납품됐고, 일부 학교는 문제제기가 잇따라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스티커를 덧붙이기도 했다"며 "아예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학교도 있는 등 시교육청의 주목

구구식 예산 운용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법기관 수사의 의뢰 등을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일선 학교까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6급 담당자 경고(인사 조치) ▲장학관 경고 ▲과장 주의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북부서 727명으로 최고

광주 지역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경찰서에 따라 최고 400명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무소속) 의원은 따르면 광주지역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북부경찰서가 평균 7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서 678명, 남부서 647명, 서부서 634명, 동부서 315명이었다.

동부서와 북부서가 412명이나 차이를 보여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전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620명으로 전국 평균 504명을 웃돌아 인력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모습 드러낸 '인권테마 역사'

오는 3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될 광주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驛)의 '인권테마 역사' 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가 세계

인권선언 60주년 특별사업으로 광주시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인권테마 역사'는 세계 최초로 인권을 소재로 특화한 지하철 역사로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7명의 인권을 주제로 한 조형물과 포스터 및 세계인권선언문·인권협약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작품들이 전시와 인권영화상영·음악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치안센터 35곳 중 21곳 경찰 全無

#### 학교 폭력은 2배 급증

광주 지역 경찰 치안센터의 60%가

관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전체의 60%인 21곳에 달했다.

동부경찰서의 경우 산하 치안센터 7곳 가운데 상근 경찰관이 있는 곳은 1곳도 없었으며 남부경찰서는 치안센터 5곳 가운데 1곳, 북부경찰서도 12곳 가운데 4곳에만 경찰관이 배치됐다.

서부경찰서는 산하 치안센터 7곳 가운데 5곳에, 광산경찰서는 치안센터 4곳 모두에 경찰관이 배치돼 차이

를 보였다.

최 의원은 "광주 동구는 야간 유동 인구가 많아 치안 수도로 높은데도 상근 경찰관이 배치된 치안센터가 1곳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로 불리다가 2003년 지구대로 통폐합된 뒤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광주에서 학교폭력으로 겸직된 인원은 77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379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높아지는 가을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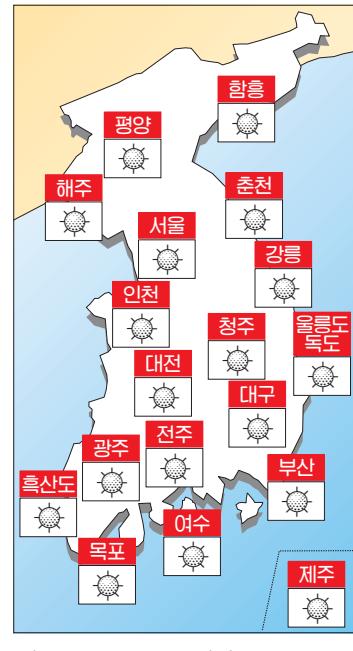
고기암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점차 구름이 많이 키겠다.

10월 21일

(음 9월 23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급	13~25°C
포항	구름 조급	14~25°C
여수	구름 조급	16~24°C
원도	구름 조급	13~25°C
구례	구름 조급	9~26°C
해남	구름 조급	10~25°C
장흥	구름 조급	11~26°C
고성	구름 조급	9~26°C
순천	구름 조급	10~26°C
영광	구름 조급	10~25°C
전주	구름 조급	12~25°C
남원	구름 조급	8~26°C
완주	구름 조급	17~24°C



기상안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4	15/21	11/21	9/18	9/19	10/21

## 잦은 안개 왜? 큰 일교차에 해무 유입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여객선이 뜨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가을철 잦은 안개는 사실 우리나라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기상청은 20일 "최근 안개가 매일 오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면서

복사방각에 따른 안개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데다 서해상의 안개(바다안개)가 육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가을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밝혔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중등교사 임용시험 광주 19.3 대 1, 전남 16.3 대 1

2009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에서 광주는 19.3대 1, 전남은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립 대1(11명 모집 341명 지원) ▲공립 일본이 30.5대 1(2명 모집 61명 지원) ▲공립 생활 29.8대 1(4명 모집 11명 지원) 등 순이었다.

전남은 233명 모집에 3천 796명이 지원해 16.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고등학교 23개 과목 137명 모집에 770명으로 5.6대 1보다 다소 오른 것이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09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3개 과목 137명 모집에 총 2천 642명이 지원해 1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목별로 4명을 뽑는 공립 보건 교

사에 187명이 몰려 46.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립

국어 25.5대 1(1명 모집 31명 지원) ▲

공립 일본어 25.5대 1(2명 모집 61명 지원) ▲공립 생활 29.8대 1(4명 모집 11명 지원) 등 순이었다.

전남은 233명 모집에 3천 796명이

지원해 16.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고등학교 23개 과목 137명 모집에 770명으로 5.6대 1보다 다소 오른 것이다.